

# 5G구축 다 돼가는데... '단말기' 개발 재촉하는 이통사

(네트워크)

## 5G 넥스트 스텝

### <中> 5G 인프라 구축, 그 이후엔?

'5G 네트워크 구축을 해도 단말이 없으면 5G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5G시대를 맞아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할 단말기 개발도 좀 더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G 상용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잡은 이유도 5G를 지원하는 단말기와 칩셋이 나오는 시점이 빨라야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수조원을 들여 5G 통신망 구축에 나서도 대중들이 서비스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5G 장비·기지국과 통신을 주고받는 스마트폰이 나와야 한다.

#### ◆5G 국제 표준 가닥... '망 보안'과 '안정성' 기술 개발도 '시동'

3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케팅에 따르면 5G는 2035년까지 12조300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연계 시장에서도 3조5000억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5G 국제 표준도 가닥을 잡았다. 이동통신 표준화국제협력기구(3GPP)는 지난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무선총회에서 단독장비만으로 5G 서비스가 가능한 SA 규격을 공개해 1차 표준을 완성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도 총회에 참석해 5G 표준 완성에 힘을 보탰다. 양사는 이와 함께 미국 AT&T를 포함해 일본 NTT도코모 등 12개 통신사가 모인 글로벌 5G 통신사연합체인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에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다.

이날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국제 5G 표준에 부합하는 '5G 전용 교환기' 개발에 성공했다. 5G 전용 교환기는 5G기 전국과 인터넷 서버 사이에서 무선 데이터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

### 5G 상용화 일정



###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개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이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노키아 43.7%	노키아 41.1%	노키아 34.2%	애플 18.9%	삼성전자 30.3%	삼성전자 31.0%	삼성전자 24.5%	삼성전자 22.8%	삼성전자 20.5%
2	블랙베리 16.6%	블랙베리 19.9%	블랙베리 16.6%	삼성전자 18.7%	애플 19.1%	애플 15.6%	애플 14.8%	애플 16.2%	애플 14.4%
3	애플 8.2%	애플 14.4%	애플 15.6%	노키아 17.9%	노키아 43.7%	화웨이 4.8%	레노버 7.2%	화웨이 7.4%	화웨이 8.9%
4	HTC 4.7%	HTC 6.3%	삼성전자 8.5%	블랙베리 10.9%	블랙베리 43.7%	LG전자 4.8%	화웨이 5.7%	레노버 5.2%	OPPO 5.7%
5	삼성전자 3.4%	삼성전자 3.4%	HTC 8.2%	HTC 9.1%	HTC 4.7%	ZTE 3.9%	LG전자 4.6%	샤오미 4.9%	Vivo 4.8%

자료/ Gartner,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이 같이 5G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차세대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5G 망을 통해 자율주행이나 바이오·생체 정보 등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외부 해킹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망 보안'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

SK텔레콤과 KT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 연구에 뛰어들어 상용화를 코앞에 뒀다.

#### ◆5G폰 내년 상반기 나올까?... '중기' 대응해야

문제는 스마트폰 등의 단말이다. 업계에서는 5G 스마트폰이 내년 2·4분기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상승하고, 교체주기가 길어져 수요 정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도 5G 단말이 등장하면 내년부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1%대 성장에 그친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내년에는 3.5%, 2020년 4.4%, 2021년 4.9%, 2022년 5.6% 등으로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예상 성장률은 4.1%로, 출하량은 18억6040만

SK텔레콤, 5G 전용 교환기 개발 칩셋 등 폰 핵심부품 개발 더더 내년 상반기 단말기 출시 미지수 화웨이 등 중 업체도 발벗고 나서

대개 될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디바이스 기술요구서를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LG전자에 배포했다. 5G 디바이스 기술요구서는 LG유플러스 통신망에서 단말을 사용함에 있어 최적화된 규격과 품질 기준 내용이 기술된 요구서다. LG유플러

스는 디바이스 검수 기준을 마련하는 품질검증 표준화 국제기구인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에 검수 기준 기고를 통해 단말 제조사가 원활히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5G용 태블릿 단말을 선보인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칩셋 등 핵심 부품이 출시되는 시점이 미지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단말 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중국 통신장비 화웨이는 내년 9월 5G 스마트폰을 출시해 단말기 분야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롯데, 지배구조개편 급물살

롯데정보통신 이달 말 상장 추진 경영 효율성 위해 사장단 회의 변경



롯데그룹 로고.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 또 경영 현안을 점검하는 사장단 회의도 11년만에 대폭 개편한다.

#### ◆경영 투명성위해 상장 추진

3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의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달 중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공모가 확정,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상장할 예정이다. 이는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첫 기업공개(IPO)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번 상장을 통해 IT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해외사업 강화,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IT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매출 6913억원, 영업이익 327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롯데지주가 롯데정보통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사장단회의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롯데그룹 경영 현안을 점검하는 사장단 회의도 5개 주요 사업부문(BU)이 각각 하루씩 총 5일간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회의방식도 비슷한 업종의 계열사 대표들이 현안과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말 그대로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다.

롯데제과·칠성음료·푸드 등 15개 식품 계열사(4일)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마트 등 유통 계열사(5일)와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6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호텔·서비스(11일), 금융 계열사(12일) 회의도 이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해 롯데의 비전이 바뀌면서 바뀐 비전에 맞는 사장단회의 개편을 생각해왔다"며 "신 회장 부재와 상관없이 비전에 맞춰 회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경상남도 #통영시 #소매물도

##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으로 당신의 보통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travelweek.visitkorea.or.kr

